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릉원을 찾으시고 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련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앞에 이르시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에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극히 곤란한 형편에서도 함미원조보가 위국의 기치밑에 우리를 희생적으로 지지성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위훈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에 력사적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종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격멸하는 성전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 영웅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땅 곳곳에 스며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송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우리 식의 6축교류전기기관차 개발

공화국의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6축 교류전기기관차를 훌륭히 개발하였다. 출력이 높고 견인력과 속도, 조종성이 우월한 세형의 교류전기기관차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해 연구제작됨으로써 철도의 수송능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는 전망이 열리었다. 김태전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평양교통운수대학, 철도성 철도연구원, 철도설계연구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식으로

창조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한 빛이 난다는 철칙의 의지를 안고 기관차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의 나날에 수천건의 설계가 완성되고 기발한 착상들과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이 려어나왔다. 견인력장치와 보조변환장치, 비동기견전동기를 비롯한 핵심부본들이 자체의 기술로 제작완성됨으로써 기관차개발의 돌파구가 마련되였다. 견인력과 속도를 원활하게 조종하고 주행의 안전성과 믿음성을 담보할수 있는 프

로그람들도 개발되였다. 개발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혁신적안목,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마침내 6축교류전기기관차가 훌륭히 제작 완성되였다. 심한 구배와 곡선 등 각이한 철길구간에서의 시험운행을 통해 새로 개발된 교류전기기관차의 우월한 기술적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다. 6축교류전기기관차의 제작완성은 80일전투에 펼쳐나선 공화국인민을 보다 큰 위훈창조으로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해마다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로부터 조래되는 파국적인 후과로 세계도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지어 목숨까지 잃고있다. 이로 하여 교통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행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뿐 누구도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세계 각지의 실태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피해복구사업이 국가적인 중대사로 되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이번엔 련속으로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불과 수십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피해지역에서 이전엔 비할수 없는 황홀한 새 집들과 마을들이 우뚝 우뚝 솟아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는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9월에는 자연재해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강북리가 최한 새집들이경사로 들끓었는데 얼마전에는 은과군 대청리와 함경남도 흥원군의 피해지역에 또다시 새집들이경사가 나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강북리와 대청리를 비롯한 피해지역들은 사람들속에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고장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태풍피

해로 이 고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더 뜨겁게 굽이치는 곳, 이전과는 비할수 없는 크나큰 재부를 받아안은 복받은 고장으로 남너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 살림집의 뜨락으로 들어서서 대청리의 주민들은 우리 원수님의 은덕에 화가 복이 되어 오늘은 대청땅에 이렇듯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졌다고,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

출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절절한 가슴속 진정은 강북리의 수재민들만이 아닌 전국의 피해지역 주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지금도 인민들은 솟구치는 눈물속에 그려본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이 당하는 고통을 그리도 가슴아파하시

어찌 이뿐이겠는가. 언제인가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 복구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과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자연재해가 휩쓴 고장에 로동당 시대의 빛나는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안아온대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시고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공화국의 피해지역에서 사는 인민들의 새 보금자리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일떠서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려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언론들도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우에 사회주의신경마를들이 보란듯이 일떠서고있는 공화국의 각지 소식들을 앞을 다투어 소개선전하고있다. 아람조선철조리사피도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을 겪는것이 레상사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예



키가는 행복의 열매

놓았다. 나라의 은덕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별천지로 전변된 금천군 강북리의 인민들은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감격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매일이더없이 련레비존에서 큰물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불행에 울면서 도 집을 지어주는 고사하고 격정마저 해줄 당도 없고 정권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돌보는 일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며 멀고 험한 피해현지를 찾으시고 수도의 전체 당원들에게 몸소 한자한자 다심한 아버지정인 흘려넘기는 공개서한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낮과 밤들을. 얼마전에도 함경남도 신포시와 흥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 정겹게 돌아보시면서 건설자들이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정성으로 깨끗한 집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려 말은 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빛나는 성과를 련속 쟁취하고있는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로와 난관이 아무리 겹쳐도 국가가 인민을 보살피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한적이 없다. 엄혹한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조선당과 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는 말의 뜻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한다.》 엄혹한 자연의 광란은 사람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하였지만 공화국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잃은것에 비해 너무나도 엄청난 크고 값진 재부들을 받아안고있다. 이것은 큰물피해복구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더 크고, 더 훌륭하며 그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을 더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오는 행복의 열매이며 그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는 인민들과 군인들의 정신적합이 안아오는 자랑찬 결실이다. 머지않아 공화국의 피해지역에서는 훌륭한 인민의 삶과 행복의 터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김순정**

조선의 힘

척척 척-
 자주와 정의의 초침소리
 인듯 10월의 지구를 뒤흔드는데
 발걸음소리, 기계화 종대들과 로켓드드대들의 요란한 동음소리.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특별공군 종대들과 강국의 무쇠기둥 인듯 줄지어 흐르는 첨단 화되고 현대화된 전략전술 무기들.
 그 장쾌하고 가슴후련한 광경을 지켜보며 온 나라 인민은 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환희로 저마다 감탄을 연발하였다.
 《멋있다.》, 《와-》, 《저것이 내 나라의 힘이네.》, 《불과 몇년 사이에 저렇게...》 ...
 감탄, 환호, 눈물.
 10월의 경축광장에서 본 인민의 심정은 이러하였다.

민족의 가슴마다에 세계를 이어, 세대를 이으며 사무쳐 온 이 환은 항일대전의 승리의 총성과 함께 셋기워지고 거리가 바라고바라던 북극강령의 남원은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영도의 손길아래 하나둘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왔다.
 오늘 조선은 강대한 힘을 보유한 행성의 무쇠할수 없는 강대국으로 우뚝 올라섰다.
 10월의 경축광장을 누빈 무진막강한 군력의 보무당당한 행진은 부인할수, 가리울수도 없는 조선의 역센 힘의 과시였다.
 그 힘은 가히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힘이고 지구도 들어울릴 불가항력적인 힘이다.
 불과 몇년 사이에 상승에서 상승으로 비약하여 강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한 조선의 힘.
 10월의 경축열병식은 그래서 감동과 눈물없는 것은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 격사의 진한 화폭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이 나라 인민, 이 거개가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 건설을 만들어 신기루와 같은 단것을 기적같은 현실로 만들고 민족의 오랜 숙원을 가슴후련하게 풀어주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은인인

민족의 오랜 숙망을 풀어

북극강령.
 이 말은 우리 거개가 오랜 세월 꿈으로만 간직하여 온 소중한 부르심이다.
 나라가 너무도 작고 힘이 약한데다가 주변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어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전란에 시달려온 조선민족이었다.
 주변나라들이 서로 싸우면 주변나라들이 서로 싸우면 그 가운데서 이리 찢기우고 저리 찢기우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나라마저 통제로 빼앗겨야 했다.
 우리는 왜 남보다 강하지 못했나?
 상가지 개선세만도 못한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면서 백의민족의 구성원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었겠는가. 북극강령은 바로고바라던 겨레의 념원이었으나 그것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으로만 되었고 《약소국》, 《약소민족》의 실음의 눈물은 삼천리조국강산과 이국의 평야들에 무수히 방울방울 떨어졌었다.
 힘이 약해 침략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칼에 찢리우고 총에 맞아뭇해 수습민의 꽃다운 청춘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피눈물을 뿌리던 조선민족의 신세는 조가지 집 울바자열에 된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 그대로였다.
 령토가 작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조선, 국력마저 약한 조선은 영영 《약소국》의 숙명에서 벗어날지 못하는가.

자위의 힘, 정의의 힘

조선의 힘에는 나라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다.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인민을 보위하기 위해 조선이 보유한 최강의 힘이다.
 나라마다 국가의安危를 위해 힘을 키우고있지만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공화국인민들처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고 새겨온 인민은 없을것이다.
 자주적인 나라, 인민의 나라를 적대시하고 압박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세계를 이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날로 더욱 거창되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인민도 겪어 보지 못한 최악의 제재압박책동이였다.
 허리를 굽히고 생존을 부지하라고, 존엄을 팔아 《변영》을 구걸하라고, 자위적



제력을 버리고 저들의 《평화》에 장단을 맞추라고 적대세력들은 하루이틀도 아니 하고 한두해도 아닌 수십년간 악랄하고 끈질기게 핵무기를 휘두르고 제재의 울기미를 조이고있다.
 그에 맞서 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安危를 지키기 위하여 군력강화, 국력강화의 힘준한 령을 넘고 또 넘어 왔다. 허리를 굽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도

존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서 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마련한 힘, 그 주구의 도움을 받음 없이 자력으로 갖춘 국가의 힘기에 그 열매는 더욱 값지고 소중한것이다.
 환희로운 10월명절의 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정령역제력을 키우는것이

고귀한 부르 《우리 인민》

지난 10월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구절구절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이 흘러 넘쳐 온 나라 인민의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었다.
 전체 인민에게 보내시는 열정적이고 따뜻한 인사로 연설을 시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 민세!》로 연설을 끝맺으셨었다.

그이께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쓰신 표현은 인민이라는 부르말이다.
 우리 인민, 아름다운 인민, 훌륭한 인민, 위대한 인민, 이렇게 신성함과 고귀한, 친근감이 담긴 표현들로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시었다.
 아마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인민을 존대하는 령도자는 없을것이다.
 연설에서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신것처럼 그이께서는 승리

지금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김일성광장을 지나드리면 10월명절의 날에 이곳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던 열병식을 비롯한 경축행사의 환희로운 장면들이 눈가에 어려온다.
 그 감동이 너무 진하여 날과 날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는 뜻깊은 경축행사 장면들이었다.
 당시 나는 온 가족과 함께 TV로 펼쳐지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열병식의 장면들을 가슴울렁이며 시청하

조선이 무거워졌다. 그 걱정하는 토로는 오래동안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깊은 의미를 안고 새록새록 새겨여졌다.
 조선의 무게!
 불과 100여년전 힘이 약해 나라를 송두리채 섬나라오랑캐들에게 빼앗길 때 조선의 무게는 겨우 화승총의 무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발뚱까지 무장한 오랑캐들이 나라

수필: 나라의 무게

조선이 강대국의 존엄과 위상을 지니고 행성을 굽어보고있다.
 령토는 작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존엄은 하늘에 닿고 그 위용은 세계에 펼쳐져있고있으니 반만년민족사에서 특기할 이 사면, 국가의 이 놀라운 변천을 안아오신분은 절세의 애국자, 강령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이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오늘 조선은 행성을 쿵쿵 울리며 더 큰 승리의 레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수필: 나라의 무게
 그이께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쓰신 표현은 인민이라는 부르말이다. 우리 인민, 아름다운 인민, 훌륭한 인민, 위대한 인민, 이렇게 신성함과 고귀한, 친근감이 담긴 표현들로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시었다. 아마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인민을 존대하는 령도자는 없을것이다. 연설에서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신것처럼 그이께서는 승리



검덕의 새 력사를 써가는 인민의 군대

공화국의 군대는 막강한 군력으로 나라와 인민의安危를 지키는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오고있다. 이 땅의 평화가 오늘도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은 인민군대의 최강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군대는 조국보위와 함께 평화적건설 즉 창조와 건설에서도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것이 세상에 들도 없는 공화국 군대특유의 구호이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유류아동병원, 평양약원학교 애육원, 과학기술전당 등 최근년간 이

시 달려나간 인민군인들은 결사관철, 단숨에의 기상을 볼썽치는 철야전투를 벌려 검덕지구에서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 2300여세대에 대하여 총공사의 60%계수를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의 힘을 세계방위에 펼쳐시려 세상에 유일무이한 환희로운 10월의 대축전을 마련해주시기도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험천만한 협곡길을 달려 밀고 힘찬 검덕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는 실지 와보니 검덕지구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컸다고 하시며 후심한 피해흔적을 말끔히가사내고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를

《검덕》으로 되였다고 한다. 이곳 검덕지구에 광부가 생겨 수백명, 그 지나긴 세 일 광산과 광부에 대한 하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그 이야기들은 지난날 길가의 막돌처럼 천대를 받아오던 광부들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대한 가슴아픈 사연들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새 세상을 세우주시어 이곳 광부들은 처음으로 광산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검덕은 후날 골짜기라고도 불리웠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귀중한 광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친히 지어주시는 것이다.
 지금도 돌가루문은 광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예 이바지하라고 고무격려해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오른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며 지심깊은 지하막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자

여주고있다. 그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수수 천년 인적도 드물던 산간벽촌인 양덕방이 인민의 웃음 꽃피는 온천문화휴양지로 변모되었고 백두산아래에 자리잡은 삼지연시가 온 나라 인민이 부러워하는 산간문화도시로 새로 일떠서게 되었다.
 마시령스키장, 연포과학자휴양소,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 중평남새농산물,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을 립상시키며 사회주의창건을 내뿜는 사회주의농촌문화마을로 일떠선다. 황해북도 금천강강북리,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실로 김정은시대에 일떠서 인민을 위한 문명의 창조물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리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는 광부들을 위해 뜰지도, 보지도 못한 산악협곡도시까지 일떠선다. 인민의 보금자리인 공화국은 오늘도 좋지만 레일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다. **홍정욱**

본사기자 류현철

본사기자 김정혁

새 집들이 경사로 온 나라가 흥성인다

이제 꿈인가, 생시인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속에서 불쑥 솟아올랐나.

폐년에 없는 큰물과 태풍이 휩쓸어 후심하게 파괴되었던 지역들에 희한한 선경마을, 행복의 별천지가 기적과도 같이 일떠서 어리서나 새 집들이 경사로 흥성인다.

고장은 분명 옛적부터 내려오는 그 고장이건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몰라보게 천지 개벽되었다.

천이 재해가 겹쳐들었던 고장들에서 오늘은 그림같이 황홀한 보금자리들에 새 집들이하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나고있다.

너무도 크나큰 복을 받아안은 인민들이 목메여 쉼없는 로동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더 큰 복을 누리다

지금 공화국의 여러 피해지역들에서는 련이어 경사가 펼쳐지고있다. 자연의 재난을 당해 집과 가산을 잃었던 주민들이 새 집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을 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꿈같은 현실을 누군들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원래 살던 집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크고 멋들어진 집들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새 집들이하게 되었으니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인간의 생활에 집은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삶의 요망이다. 그래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뭐라고 표현할수가 없다. 잃었던 집, 그 집보다 월등한 새 집을 받아안게 된 것이야말로 복이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복없는 사람은 없지만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아안고있다.

화가 복이 되었다는것도 그런 뜻에서일것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남달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한게 더 많아서인가. 아니다.

불행의 당하거나 상처입은 사람들을 더 따뜻이 품어안아 주는 공화국의 정치가 좋고 사회주의제도가 좋아서이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

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결로 더 다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진수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거창한 피해복구대전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새 기적들이 창조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사랑의 금방석, 행복의 금방석에 앉게 되것이다.

김일심

춤, 춤...

여기도 춤판, 저기도 춤판이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서도, 함경남도 흥원군의 운로로동자구에서도, 경포로동자구에서도, 새 집들이 경사가 펼쳐진 곳곳마다에서 흥겨운 춤판이 련일 펼쳐지고있다.

열두발상모를 멋들어지게 휘날리며 새남과 징, 팽과리와 북, 장고장단에 맞추어 어깨를 들썩이며 농악무를 추는 모습은 볼수록 흥겹다.

백발의 늙은이도, 너넨들과 아이들도 오늘의 이 기쁨을 춤가락에 담아 한껏 터치고있다.

지구상의 도처에서 악성전염병과 자연의 대재앙으로 눈물과 고통의 한숨소리, 통곡소리가 높아갈 때 이 땅에서는 새 집들이 경사로 행복의 웃음소리 드높고 즐거운 춤판이 어딜가나 펼쳐지고있다.

저 흥겨운 춤판처럼 인민의 생활은 기쁨의 춤과 노래속에 앞으로 더욱 즐겁게 흘러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어깨춤 필로



은파군 대청리의 새 집들이



신문과 TV를 통하여 은파군 대청리인민들이 새 집들이를 하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 대청리가 맞긴 맞는가. 련이어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기고 변변한 살림집을 찾아볼수 없었던 대청리였다.

그런데 불과 수십일사이 이렇게 훌륭히 건설되어 인민들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되

대청리가 천지가 개벽되었다

였으니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다.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앉았던 인민들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피고 너무 좋아 어깨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민들의 행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신의 로고와 잇닿아있구나 하는 생

각에 눈곱이 찢어뜨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먹구름이 채 가셔지지 않은 험한 길을 헤쳐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으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불같은 인민사랑. 그의 뜻을 받들어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여 새 집들이 경사를 안아온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두쟁이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었다.

정말 인민들의 얼굴에 비긴 재난과 근심의 자그마한 그늘도 가셔주시고 행복에 더 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우리 원수님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고마운 그 품에 나도 안겨살고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저절로 울려나온다.

평양시 락랑구역 김진옥

불과 얼마전의 일이었다. 련속 들이타치는 자연의 광란으로 집들이 무너지고 도로와 논밭이 물에 잠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며 가슴을 조였던가.

그러나 오늘은 천지 개벽된 피해지역들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너도나도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어제는 강북평과 은파평에서, 오늘은 북변의 흥원평에서 련이어 일어나는 새 집들이 경사로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

로 들끓는다. 사회주의선경마을들에 인민의 기쁨, 행복의 웃음이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희한한 살림집들을 한낱한시에 받

고 순간부터 자기들보다 더 큰 걱정을 안으시고 어느 한순간도 쉬지 못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수재민들을 걱정하시고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너던가. 그들이 오늘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새 마을, 새 집들에 가슴 쪽 찢고 들 어서고있다.

누구나 부러워한다

어안게 된 주민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의 하늘같은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큰물과 태풍으로 집을 잃은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어버이 그렇듯 진정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에 떠받들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어도 걱정과 불행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로 날과 날을 이어온 이들이 아

뜻밖에 들이타친 대재앙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과 가산을 송두리채 앗아갔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자연이 몰아온 화를 복으로 바꾸어놓았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부러워하고있다. 그리고 따듯이 축복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금천군 강북리



모란봉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5)

평양성의 북문 - 현무문

동암문을 나선 우리는 소로길을 따라 나날이 가을 빛을 더해가는 주변경치를 부감하며 현무문으로 향하였다.

리일심연구사는 현무문이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북성의 북문으로 처음 세운것이며 지

금의 건물은 1714년에 다시 지은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현무문을 통과해보기도 하고 문옆에 나있는 계단을 따라 문루에도 올라가 보았다.

현무문은 성벽의 연장으로

되는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있다.

축대를 성벽과 같이 4각주형으로 다듬은 성돌로 차곡차곡 포개어 쌓고 그 북편에 무지개문길을 내었다. 그우에 합각지붕형식으로 되어있는 문루는 모두단청을 입혀 주위의 자연풍치와 잘 어

울러졌다.

리일심연구사는 우리에게 현무문이라는 이름이 옛사람들이 동, 서, 남, 북 네 방위를 지킨다고 한 《수호신》 들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가운데서 북쪽방위인 현무의 이름을 따서 지은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사신도라면 강서세무덤을 돌아와서 잘 안다.》

《사신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 강사가 증세세계미술사에서 동방사신도를 대표하는 조각품의 하나로 높이 평가되고있다고 이야기하던것이 생각납니다.

강서세무덤의 사신도가 천수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색이 변치 않고 생생히 남아있는것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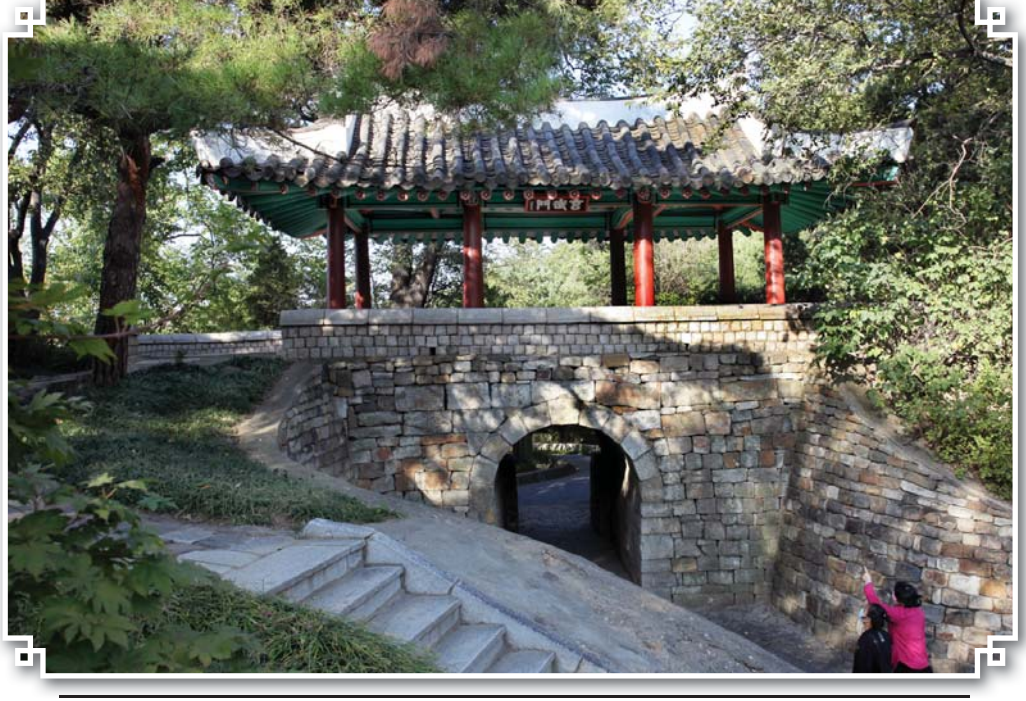
우리 민족사에 오래도록 전해오는 현무와 모란봉의 현무문.

참으로 모란봉은 경치도 뛰어나지만 역사도 깊은 산이다.

이런 력사가 깊은 모란봉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고 현무문도 심히 파괴되었지만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해 원상복구되었다고 한다.

공화국의 올바른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이 있어 반만년을 헤아리는 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가 오늘도 렬면히 이어져오고있다는 연구사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김 철



특색있는 동식물 전시관

공화국의 오가산자연보호관리소에서 동식물전시관을 새로 꾸리었다.

연면적이 300여㎡인 동식물전시관은 봄부터 겨울까지 오가산의 자연경관을 볼수 있게 되어있다.

여기에는 곰, 오소리, 꿩, 산달 등의 동물박제품들과 산삼, 황경피나무, 삼지구엽초, 만병초를 비롯한 800여점의 식물표본이 전시 되어있다.

전시관주변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가산의 자연풍치를 부감하면서 휴식할수 있는 정자와 휴식터도 꾸려져 있다.

본사기자

가을이 되면 위병이 도진다. 찬 공기가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 위점막의 보호능력을 떨어준다.

서늘한 가을은 위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계절이다.

가을철에 가을에 관심을 돌려야 할 (위) 이란 현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나이가 들면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위가 달아오르듯 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식사후에

사람들은 위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위를 보호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로, 소화하기 쉬운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한다.

둘째로, 기름기가 적고 자극이 약한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셋째로, 식품의 온도가 적당해야 하며 위생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로, 매끼 배가 70~80% 정도 부르케 먹으며 식품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본사기자

사화

최무선이야기 (1)

때는 1350년 고려 충정왕 2년이었다.

이무렵 한때 잠잠하던 왜구들이 조선 남쪽항구들을 불의에 침습하여 수많은 재물들을 약탈하곤 하였다.

장계(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서면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를 지닌 급사는 개경으로 달렸고 원한에 찬 백성들의 목소리는 나라안을 뒹뒹 울리게 하였다.

고려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포왜사를 임명하여 군사와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사신을 왜의 아시기가막부(무인정치를 보던 기관)에 보내어 단속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형식적이며 불철저한 방법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에 있어서 포왜사가 거느리고 내려간 군대라는것은 우선 수효가 적었을뿐 아니라 무기력한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정작 필요한 인원과 무장은 현재의 백성들속에서 대부분 충당하기마련이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성의

와 무능력은 까닭없는 일이 아니였다. 당시 즉 고려 말엽의 봉건통치체들은 모두 대지주였던 왜구들을 경작작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비들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노비들이 군대로 징발되는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하여 정구군은 보잘것없이 되었고 더욱이 수군은 거의 명색뿐인 형편이였다. 통치체들은 이처럼 한심한 국방상태에는 아랑곳없이 일신의 안일과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있었다.

최무선은 일찍부터 나라의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근심과 울분을 품고있었다. 부친 최동순은 겨우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낮은 위치에 있었고 최무선도 역시 미미한 관직에 있는 처지인처럼 뜻이 있었되 시원히 말도 못하고 항상 우울하게 지냈던 것이였다.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림서로 편성된 군대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자기의 향토와 조

국을 지켜 왜구들을 맞받아 싸워 크게 이기곤 하였다.

이에 바빠진 왜구들은 전술을 바꾸어 고려군대가 있는 곳을 미리 정탐하고 교묘하게 피해가며 침습해 왔다.

왜구들은 오늘은 남쪽, 내일은 서쪽 하는 식으로 방비가 약하거나 없는 곳을 골라가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오만무례하고 잔인한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아시기가막부에 담판하려 했던 사신들은 매양 뜨뜨미지근한 대답을 듣고는 호지부지 돌아오곤 하였다.

당시 아시기가막부는 사실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해적들을 단속할만 한 능력도 없었을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약탈행위를 비호해주는 형편이였다.

최무선은 같은 당년 25살의 뜻있는 청년이 이와 같이 어지러운 나라의 형편에 대하여 결코 무심할수 없었던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최무선은 포왜사가 거느린

역사유물 양부일구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시간을 재는 여러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생활과 생산활동에 리용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해시계인 양부일구이다.

양부일구는 1434년에 조선의 천문학자인 장영실과 여러 기술자들의 협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천문관측기구이다.

이 시기의 주요부분은 해 그림자를 받는 절반공면그릇과 해그림자를 이루게 하는 그림자막대기의 두가지로 되어있다.

그림자막대기는 공면에 가로 붙여있으며 막대기의 앞끝(꼭대기)은 공면의 모임점(중심)과 일치되어있다.

공면그릇의 외면에는 네개의 받침대(발)가 붙여있어서 그릇을 수평면우에 안정하게 놓을수 있게 되어있다.

공면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선들이 그려져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표시도 되어있다.

본사기자 김 철



태양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 중앙은행에서 -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실리적이고 전망성있는 자연에너지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고있다.

그중에서도 태양에너지를 리용범위는 매우 크다.

공화국의 중앙은행에서 태양에너지를 리용하여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그 덕을 보고있다.

중앙은행에 가게 되면 구내의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태양발전지판들이 이채롭게 눈길을 끈다.

푸른 잔디와 갖가지 꽃들로 단장된 울타리를 배경으로 구내마당의 한쪽편에 열

을 지어 주권이 설치된 태양발전지판들, 번듯하게 일떠선 고층건물의 로데 한쪽편에 설치된 태양발전지판들, 작은 태양발전지판들 우에 달고있는 구내정원들...

태양발전지판들을 해빛

이 제일 잘 드는 곳에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문화후생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고 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고구려 벽화 무덤 (발굴)

최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남포시민족유산보존사의 연구집단이 남포시 룡강군 은덕지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무덤은 은덕지구북쪽의 산중턱에 위치하고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1.5km정도 떨어진 곳에 세계유산인 룡강근무덤과 쌍기둥무덤이 있다.

무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돌칸흙무덤이다. 안길입구에는 화강석관돌을 두어 만든 대문형식의 돌문이 있는데 이 돌문이 최초로 만든 고리형순장이 붙어있다. 현재 남아있는 돌문의 높이는 125cm, 너비는 60cm, 두께는 9cm이며 손잡이의 직경은 10cm이다.

안길은 안칸의 남북중심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있

고 안칸은 평면정방형을 이루고있다. 바닥에 서쪽으로 치우친 장방형의 낮은 판대가 놓여있다. 벽체는 남벽과 서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안칸 한변의 길이는 3.17m, 높이는 1.5m정도이다.

벽화의 기본주제는 사신도이다. 서벽에는 붉은색 안료로 눈을 강조한 대가리와 길게 누운듯 한 몸통, 추구쳐오르다가 구부러진 꼬리가 달린 백호가 형상되어있다.

발굴과정에 범이나 개와 같은 짐승의 대가리와 앞다리, 말의 허리뒤부분을 형상한 벽화조각들, 무덤칸천정공돌리에 넣을 무늬를 그린 벽화조각들이 나왔다. 이외에 판대우에서 판못 1개가 발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발굴정형

을 심의하고 이 무덤은 통강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신도주제의 고구려벽화무덤이며 그 축조시기는 6세기경이라고 확증하였다. 또한 고구려벽화무덤들 가운데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신도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덤이 흔치 않은것만큼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 특히 매장풍습 등을 연구하는데서 학술적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관계사료를 더욱 풍부히 하고 공화국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찬란한 민족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관상용물고기들은 거의 모두가 물온도에 예민하다고 볼수 있다.

물고기들의 몸온도는 물고기가 사는 물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관상용물고기와 물온도

물온도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물고기들은 죽게 된다.

관상용물고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온도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잉어과의 물고기들에게 적합한 물온도는 18~28°C이고 열대어에게 가장 좋은 물온도는 24~28°C이다.

관상용물고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물온도가 단기간에 3°C이상 달라지거나 하루사이에 10°C이상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물온도를 잘 보장하는것은 관상용물고기를 기르는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다.

본사기자

추어탕

미꾸라지(추어)를 삶아 만든 량이다.

미꾸라지는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므로 강장작용을 하며 빈혈치료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 그리고 부종을 내리게 하고 독풀이, 간기능회복, 치질치료작용을 나타내며 술을 깨게 하는 작용이 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꾸라지 150g, 두부 40g, 미나리 20g, 풋고추 30g, 숙갓 20g, 고추장 10g, 콩된장 15g, 소금 20g, 생강 5g, 기름 15g, 파 10g, 마늘 3g, 후추가루 0.2g, 맛내기 0.2g, 요리용술 10g을 준비한다.

1. 생강은 얇은 편으로 썰고 파의 절반량은 길이가 3~4cm 토막으로, 나머지는 송송 썰어놓는다. 두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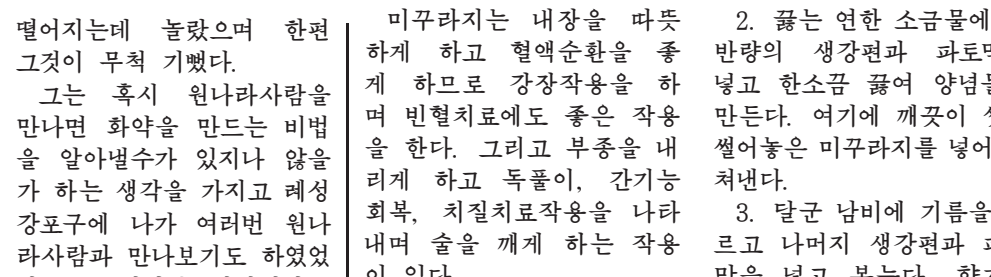
이 3cm, 너비 2cm, 두께 0.5cm 되게 썰어놓는다.

2. 삶은 연한 소금물에 절반량의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한소끔 끓여 양념물을 만든다. 여기에 깨끗이 씻어 썰어놓은 미꾸라지를 넣어 데쳐낸다.

3.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나머지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볶는다. 향기가 나면 미꾸라지를 넣고 같이 볶다가 술을 약간 치고 물을 미꾸라지의 3배정도 되게 부어 1시간 30분정도 푹 끓인다.

4. 미꾸라지 푹 익으면 된장과 고추장, 두부, 숙갓, 미나리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송송 썬 풋고추와 파, 다진 마늘, 맛내기, 후추가루를 넣어 맛을 들인다.

본사기자



떨어지는데 놀랐으며 한편 그것은 후식 기뻐했다.

그는 즉시 원나라사람을 만나면 화약을 만드는 비법을 알아낼수가 있거나 앓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맹성강조부에 나가 여러번 원나라사람과 만나보기도 하였다.

그들에게서 화약이라는 위대한 보물에 대하여 알아내고싶었던 까닭이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화약을 만들고 그것을 화통에 리용함으로써 자기 나라 렬에 침입한 왜구들을 물리쳤다.

그때 고려조정에서는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어 화약과 화통의 제조법을 가르쳐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극비라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무선은 계속 대륙에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알아보기도 하였고 이웃나라에서 교역선이 울 때마다 포구에 나가 물어보곤 하였다. 그러던 중에 한 나라의 화약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설혹 이웃나라 사람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 해도 알려줄리는 만무하였다. 만약 비밀을 루설한것이 발각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국법에 의하여 중한 형벌을 받게 될것이기때문이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양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적다.

사람이란 아는것이 많고 지성도가 높을수록 무척있게 행동한다는것을 비유 이르는 말이다.